

■ 주요 뉴스: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 추가 발생. 시장은 낙관, 연준은 경계

- 독일, 가계부문의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(응답자의 40%는 상황 악화 예상)
- 영국 GDP 성장률,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경기침체 가능성 여전
- 러시아, 국부펀드 내 우방국(중국, 인도, 튀르키예) 통화 비중확대 검토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에 의한 위험선호 재개

주가 상승[+1.7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하락[-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관련 낙관론 확대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, 레저 관련주 주도로 0.2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둔화보다 통화정책 차별화를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6% 하락, 엔화는 0.3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로 하락
독일은 미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고수한 여파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1.1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8/12일	8/11일	전일대비			8/12일	8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280.2	4,207.3	1.73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3%	2.89%	-6bp
	유럽	440.87	440.16	0.16%		독일	0.99%	0.97%	2bp
	중국	3,276.9	3,281.7	-0.15%	CDS 5y	한국	34bp	35bp	-1bp
	일본	28,547	27,819	2.62%		중국	71bp	73bp	-2bp
	한국	2,527.9	2,523.8	0.16%	위험 지표	EMBI+	413bp	403bp	10bp
환율	달러지수	105.63	105.09	0.51%		VIX	19.53	20.2	-3.32%
	유로화	1.0259	1.0320	-0.59%		WTI유	92.09	94.34	-2.38%
	엔화	133.42	133.02	-0.30%	원자재	구리	366.85	370.65	-1.03%
	위안화	6.7428	6.7448	0.03%		금	1,802.4	1,789.7	0.71%
	원화	1,302.4	1,303.0	0.0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 추가 발생. 시장은 낙관, 연준은 경계

- 미국 7월 수입물가지수는 '21.1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(-1.4%). 3일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발생(10일 CPI_{+8.5%}, 11일 PPI_{+9.8%})함에 따라 낙관론이 더욱 커졌고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도 상승(8월 55.1)하며 심리 회복에 영향
 - LPL Financial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논지를 뒷받침한다고 언급. Inverness Counsel은 아직 약세장^{bear market}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미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진단
- 한편, 미 연준은 매파적 입장을 고수.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금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추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% 부근에서 머무는 것을 보고 싶다고 언급
 - Reuters는 칼럼을 통해 연준 파월 의장이 금번 잭슨홀 미팅(8/26일)을 통해 한층 더 구체화된 양적긴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독일, 가계부문의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

- ZDF(공영방송)와 Forschungsgruppe Wahlen(여론조사 기관)이 8/9~11일 1,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, 응답자의 40%는 1년 안에 물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. 40%는 집계 이래 최고 수치에 해당

■ 영국 GDP 성장률,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침체 가능성 여전

- 통계청(ONS), 6월 GDP는 전월대비 -0.6% 감소. 감소 폭은 '21년 1월 이후 가장 컸으나 예상(-1.2%)보다는 양호. 단, 소비자 대면 서비스 부문 회복 부진(코로나19 이전 대비 -4.9%), 무역수지 적자 심화(6월 228.5억파운드) 등 경기침체 징후도 다수 발생

■ 러시아 중앙은행(CBR), 국부펀드 내 우방국 통화 비중확대 검토

- CBR,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미 달러화 및 유로화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위안화, 인도 루피화, 튀르키예 리라화를 매입해 국부펀드에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. 자칫한 부총재는 최근 모스크바 거래소의 위안화 거래량이 유로화에 근접했다고 언급

■ 폴란드 중앙은행, 통화긴축 감속 시사

- 글라핀스키 총재, 현재의 경제지표, 전망치를 감안하면 폴란드는 더 이상 고강도 통화 긴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.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'24년부터는 큰 폭 하락하며 4분기 목표 범위 상단(3.5%)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, 예상보다 큰 폭 둔화

- 7월 위안화 신규 대출은 6,790억 위안으로 6월(2조 8,063억위안)에 비해 큰 폭 감소했으며 예상치(1조 1,250억)도 하회. Pinpoint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지속, 부동산 시장 심리 악화 등으로 여전히 취약한 중국 내수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평가

■ 대만 정부, '22년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

- 대만 행정원주계총처(DGBAS), 대만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-7.01%(연율)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면서, '22년 성장률 전망치를 +3.91% → +3.76%로 소폭 하향 조정. 반도체 수출 호조 불구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

■ 인도 7월 인플레이션을, 4개월 만에 7% 하회

- 인도 중앙통계국(MoSPI), 7월 소매물가(CPI) 상승률은 +6.71%로 전월(+7.01%) 및 전망치(+6.75%) 하회. 주로 식품 물가 상승률 둔화(6월 +7.75% → 7월 +6.75%)에 기인. 단, 여전히 7개월 연속으로 중앙은행 허용 범위(2~6%)를 웃돌고 있는 상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1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: 55.1, 7월(51.5), 예상치(52.5)
- 영국 2분기 GDP 성장률(전기비): -0.1%, 1분기(+0.8%), 예상치(-0.2%)
- 영국 6월 산업생산(전월비): -0.9%, 5월(+1.3%), 예상치(-1.4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국제자본이동(TIC),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, 일본 2분기 GDP 성장률, 6월 산업생산, 중국 7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발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